



|우수작|

## 인터뷰를 인터뷰하다!

<시대의 초상>을 통해 본 좋은 인터뷰 프로그램의 조건

노중호

### 1. <지식채널e> 낳은 멋진 인터뷰 프로그램

작년과 재작년을 통틀어 가장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뽑으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지식채널e>를 꼽겠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금까지 지상파가 보여주지 못했던 미학이 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를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전달하면서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특별히 심각한 비약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자료화면, 음악, 자막을 능숙하게 편집해서 확실한 메시지와 감동을 전달한다. 그 메시지에 내재해 있는 정치적 올바름 또한 매력이다. 이는 EBS 피디들의 역량을 보여준다. 동시에 <지식채널e>를 통해서 EBS 피디의 역량은 발전을 거듭한다.

<지식채널e>를 통해 길러진 EBS 피디들의 역량이 또 하나의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바로 <시대의 초상>이다. 기존 방송 인터뷰 프로그

램은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일단 인터뷰이(interviewee)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정, 말투, 손동작 등이 다 나온다. 이걸 신문이나 라디오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방송 인터뷰의 본질적 장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터뷰이를 스튜디오로 부르고 패널을 구성하고 화면을 찍어 편집해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신문, 라디오와의 속보 경쟁은 불가능하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만큼 인터뷰 프로그램은 섭외의 어려움도 겪는다. 웬만한 각오 없이는 출연하기 힘들다. 섭외의 어려움 때문에 방송 인터뷰 프로그램은 대부분 인터뷰이가 쉽게 응할 수 있는 질문만 한다. 그래야 그나마 인터뷰이를 섭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이 인터뷰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덕담 인터뷰, 축하 인터뷰, 띄워주기 인터뷰……. 그래서 수많은 인터뷰 프로그램이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며 좋은 인터뷰 프로그램의 기준을 만들지 못했다.

<시대의 초상>은 일단 속보성을 포기했다. 이 선택은 탁월하다. 방송 인터뷰 프로그램이 속보성 경쟁을 하는 순간 프로그램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시작한 <단박 인터뷰>도 엄청난 위험성을 안고 출발한 것이다. 아직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평가하기 이른 감이 있지만 정치인들의 뒤통수만 쫓아다니다가 끝날 가능성이 크다. 아무튼 <시대의 초상>은 속보성을 포기하고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아니라 꾸준히 우리 사회에서 시대적·사상적·문화적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을 인터뷰어로 선정하고 있다. 또 <시대의 초상>은 질문자의 등장을 최소화시키고 주인공에게 최대한 집중한다. 하고 싶은 말을 시키되 피디나 패널이 나서서 치켜세워 주지는 않는다. 또 <지식채널 e>가 보여주었던 영상미학을 고스란히 수용하고 있다. 그 동안 다른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었던 <시대의 초상>만의 매력이다. 요컨대 <시대의 초상>은 기존 방송 인터뷰 프로그램과 다른 길을 감으로써 멋진 인터뷰 프로그램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 방송 인터뷰 프로그램과 다른 <시대의 초상>만의 특수성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매력과 의미를 찾아보자.

## 2. 누구를 인터뷰할 것인가? - 누구나 시대의 주인공이다

누구를 인터뷰할 것인가? 이것은 인터뷰 프로그램이 겪는 가장 큰 고민이다. 사실 인터뷰 주인공만 고른다면 이미 프로그램의 반은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다. 신문, 방송, 라디오를 불문하고 기존 인터뷰는 대부분 현재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선택한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람, 이슈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 주인공으로 선택된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말을 아낀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래야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진심과 진실을 몰라야 더 궁금해하는 역설적 상황이다. 또 인기 있는 사람에 대한 인터뷰는 주인공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다가 끝나버리기 쉽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인기인이 인터뷰 프로그램까지 나올 이유가 없다.

<시대의 초상>은 이슈를 따라 주인공을 선정하지 않는다. 또 인기인에 연연하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방송된 주인공을 돌아보자. 한대수(3회), 김응용(4회), 김수철(6회), 권인숙(8회), 박웅현(9회), 김부선(11회), 김정남(13회). 이들은 모두 한물간 사람들이다. 한대수, 김수철, 김부선은 이미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연예인이다. 권인숙도 한때는 아주 논쟁적인 인물이었으나 지금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심지어 박웅현, 김정남

은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다. <시대의 초상>의 캐스팅은 대중의 관점에서 벗어난 사람들만 일부러 골라 주인공으로 삼은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하지만 <시대의 초상>을 보고 나면 왜 이들이 인터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된다. 하나하나가 역사적 인물이다. 광고인 박웅현은 “대학시절 운동권에 대한 부채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근 큰 호응을 받은 광고를 많이 만들었다. ‘사람을 향합니다’라는 카피도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자본주의의 침병이라 할 수 있는 광고를 만들면서도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누구도 자신의 시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유명인이 자신의 삶을 소개하면서 “나는 역사와 시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면서도 시청자들은 자신은 역사와 시대와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저 먹고사는 것을 고민하는 일반인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대의 초상>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일반인과 크게 다를 것 없는 그들의 삶은 인터뷰 내내 시대와 연결된다. 이것은 역사와 시대에 대한 시청자들의 생각을 바꾼다. ‘나 역시 역사와 시대의 산물이구나…….’ 이것이 <시대의 초상>의 장점이다. 시청자와 인터뷰이 간의 거리를 너무 멀지 않게 조율함으로써 주인공을 통해 나를 비춰보게 만든다. 그리고 생각한다. 누구나 시대의 주인공이다.

### 3. 무엇을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

-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

모름지기 좋은 인터뷰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거침없이 던지는 인터뷰다. 그런데 <시대의 초상>에는 질문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질문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히지 않는다. 간혹 피디의 목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그것조차 최소화한다. 질문의 내용을 자막으로 처리해주는 사소한 편집 기법조차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지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거야?’ 하는 의문이 든다. <시대의 초상>은 왜 이다지도 시청자들에게 불친절한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시대의 초상>은 어떤 문제에 대해 묻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대의 초상>은 그야말로 ‘너는 누구인가’를 묻는 프로그램이다. 주인공은 자신의 이야기, 자기가 겪었던 일을 자기의 흐름에 따라 말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자신의 삶을 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기법이다.

이문열 작가 편은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문열은 더없이 정치적인 사람이다. 그것도 정치적 편향성이 분명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초상>은 정치적 견해를 묻지 않는다. 다만 그가 살아온 길을 들어준다. 이문열은 자신이 겪었던 시대 상황을 말함으로써 자신이 왜 그런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간접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그의 정치적 입장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중요치 않다. 그건 시청자가 판단할 문제다. 시청자가 그 정치적 입장에 동의하든 동의

하지 않은 시청자는 <시대의 초상>을 통해 이문열의 삶을 보는 것이고 그를 통해 그의 정치적 입장이 생긴 이유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시대의 초상>은 생각이나 의견에 대한 이해는 그 인간의 삶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전달된다고 믿는다. 인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주인공에 대해서 묻겠다는 기획 의도와 달리 사실은 주인공의 생각만 캐물었던 기존 인터뷰 프로그램들의 한계를 넘어선다.

#### 4. 영상을 통해 조각난 인터뷰 - 인물과 시대를 동시에 조명한다.

<시대의 초상>이 기존 인터뷰 프로그램과 다른 점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영상편집이다. 인터뷰 중간에 수많은 영상과 자막과 음을 넣는다. 심지어는 주인공이 말한 하나의 문장을 끊고 중간에 영상을 넣고 그 다음에 다시 문장을 연결하기도 한다. 인터뷰가 영상을 통해 조각조각 파편화된다. 피디가 질문자의 입장으로 인터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의미는 주인공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영상으로 증명한다는 점이다. 이는 주인공의 진실성, 진정성을 높여 시청자로 하여금 믿음이 가게 만든다. 두 번째 의미는 주인공을 역사적 인물로 위치시킨다는 점이다. 사실 역사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역사의 자기장 안에서 역사의 영향을 받는다. 또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역사를 만들어간다. <시대의 초상>은 인터뷰 중간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영상을 배치시킴으로써 한 인물과 그 인물이 살았던 시대를 동시에 조명한다. 이런 방식은 <시대의 초상>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 ‘인물들을 통한 과거와 현재, 미래와의 대화’<sup>1)</sup>라는 기획 의도에

부합한다.

<시대의 초상>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김응룡 감독에게 ‘광주와 5·18’을 읽어낸다. 또 배우 김부선에게서는 ‘독재정권 시절 탈정치화의 도구로 사용된 연예업계와 대마초 규제’의 문제를 읽어낸다. 사실 그 동안 김응룡 감독은 그저 뛰어난 감독 정도로만 조명되었다. 그저 맹장의 리더십을 가진 감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나 <시대의 초상>을 통해 그는 5·18을 온몸으로 겪은 역사적 인간으로 재탄생한다. 배우 김부선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다. 우리에게 김부선은 늙은 나이에 몸으로 승부하는 배우, 대마초 피운 것을 자랑하는 배우 정도로 인식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의 초상>은 그녀가 독재정권의 희생자였음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그 경험이 그녀를 역사를 고민하는 운동가로 만들었음을 보여준다. 김부선이라는 인물의 인터뷰를 통해 인물의 본질을 정확히 더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명암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야말로 인물과 시대를 동시에 조명하는 것이다.

## 5. 인터뷰와 수다의 중간지점을 찾아라!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시대의 초상>은 장점과 매력이 많은 인터뷰 프로그램이다. 특히 영상미와 편집의 화려함이 눈에 띈다. 이는 <시대의 초상>의 최대 장점이자 동시에 최대 약점이다. 왜냐하면 인터뷰 프로그램의 화려한 영상이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빼앗기 때문이다. 이는 케이블TV 애틀브얼터밋(MTV Ultimate)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사용하

---

1) <http://www.cbs.co.kr/HOMEPAGE/?progcd=0004906>

는 인터뷰 편집 기법이다. 엠티브엘티밋은 3~4명의 인터뷰이에게 연예 이슈에 대한 질문을 던져놓고 인터뷰 내용을 10초 혹은 5초 단위로 조각조각 파편화시켜 정신없이 늘어놓는다. 그 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하루만 지나도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비주얼과 편집 효과를 통해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시대의 초상>도 영상이 강조되다 보면 자칫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인터뷰 프로그램답게 시청자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고 궁극적으로 주인공과 대화를 나눠야 하는데 영상이 이를 방해하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방송된 김정남(13회) 편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살짝 엿볼 수 있었다. 인터뷰 중간중간에 쇠구슬 영상이 계속 삽입되는데 그런 독특한 영상이 시청자의 시선을 빼앗아 결국 시청자는 주인공과 대화할 여유를 잃어버린다. 나는 브레히트의 ‘소외 효과’ 이론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단초를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 6. 소외 효과(Alienation Effect)

브레히트는 무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관객들의 감정 이입을 막는 행위를 ‘소외 효과’라고 불렀다. 그는 관객들이 ‘의도적으로 불신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고자 했으며, 관객들이 밝은 빛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기를 원했다. 브레히트는 관객들이 자신의 사회 비판을 관객들이 받아들이고 연극에서 깨달은 새로운 지혜를 그들의 삶 속에 가져가기를 원했다.<sup>2)</sup>

소외 효과란 결국 관객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는 연극기법이다. <시대의



초상>도 프로그램이 끝나고 시청자가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상에 몰입함으로써 생각을 잃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 프로그램과 일정한 거리를 둬으로써 시청자가 자신의 생각을 떠나가게 만들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는 시청자를 프로그램과 주인공으로부터 일정 부분 소외시켜 가능할 것이다. 집중하되 몰입하지 않는 경지. 굳이 <시대의 초상>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시대의 초상>은 멋진 인터뷰 프로그램으로서 기준을 세워나가고 있다. 여기에 이 방향성을 추구하고 그에 대한 실험을 최초로 시도한다면 <시대의 초상>은 인터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 프로그램의 기준이 될 것이다.

---

2) 밀리 S. 배린저 지음, 이재명 옮김, 『연극 이해의 길』(평민사, 1991).